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5월의 어린이 사연 모집

만나고 싶은 작가, 함께 읽고싶은 책에 대한
어린이의 **이야기와 사연**을 보내주세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님이 찾아갑니다!

신청기간 5/3(금)~5/15(수)

신청자격 어린이 및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른

신청방법 1. 책의해 홈페이지/인스타그램에서 응원작가단 정보 확인
(소개, 프로그램, 주제도서 등)

2. 원하는 작가와 책을 고른 후
책의 해 홈페이지 혹은 QR코드로 신청



문의 bookyearkorea@daum.net 책의 해 추진단 사무국

- * 문화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및 배정합니다.
- *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사연의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선정되신 경우 개별 연락드립니다.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권지영

작가 소개

동시와 동화를 쓰고 있는 권지영 작가입니다. 어린이들의 세계를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와 동화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시집, 동화책, 그림책을 통해 제가 좋아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담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이야기 세상을 꿈꾸며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나를 안아주는 동시 여행 2. 그림책이랑 놀아요! 3. 비밀의 숲을 찾아라!

주제 도서

「팔랑팔랑 꼬끼리」, 「비밀의 숲」, 「전설의 달떡」, 「행복」

"꿈과 희망을 마구마구 펼칠 수 있는 즐거운 책으로의 여행을 함께해요. 책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준답니다."



김담이

작가 소개

2019대전일보 신춘문에 소설 〈종점 만화방〉으로 등단
2022국제신문 신춘문에 동화 〈동백 101호〉로 등단
2022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등이 간질간질〉〈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이〉
제30회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동화부문〈올해의 5학년〉으로 대상 수상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올해의 5학년〉은 미래의 세상에서 복제인간으로 만들어진 다경의 이야기를 담은 SF 동화인 만큼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다경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주제 도서

〈올해의 5학년〉

많은 아이가 책의 흥미를 느끼고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책을 고르게 접해 풍부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며 꿈을 가꾸어 나갈 수 있으면 한다.



김리라

작가 소개

장편동화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로 제4회 웅진주니어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우리는 걱정 친구야」, 「너랑 절대로 친구 안 해!」, 「안 돼, 낯선 사람이야」, 「나토비가 나타났다」, 「이상한 생일 초대」, 「공부 잘하게 해 주는 빵」, 「돌봄의 제왕」, 「플라톤 아저씨네 이데아 분식점」, 「나는 엄마를 기다려요」, 「선생님 관찰 일기」, 「왕금 새 구출 작전」, 「소희가 온다!」, 「로봇 형 로봇 동생」, 「조선 신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동화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 - 동화 「우리는 걱정 친구야」로 배우는 걱정 친구 사귀기

주제 도서

「우리는 걱정 친구야」

책아, 책아, 어린이에게 걱정 친구가 되어주렴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김미승

작가 소개

몽글몽글하고 풋풋한 이야기를 찾아 늘 머리 한쪽에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삽니다. 그렇게 포착된 이야기의 씨앗이 양분 가득한 상상력을 먹고 향기 그윽한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어린이에게 가 닿기를 늘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상처받은 어떤 기억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불안하고 긴장되어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나요?
- 내가 의사가 되어 그 마음을 불러내어 속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마음 치료사 놀이'를 해보아요.

주제 도서

동화 「그 비밀 나한테 팔아,」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김미혜

작가 소개

2013-23년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어린이 창작동시 공모 심사위원, 2016년-23년 문화가 있는 날 파견 작가(제주 달리도서관 등/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2023년 길 위의 인문학 (청주기적의도서관/나를 기록하는 글쓰기), 202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 2023년 시시각각 말놀이 (제천기적의도서관) 등 어린이와 함께하는 시 쓰기 강연, 출간 작품으로 동시집 <꼬리를 내게 쥐> <아기 까치의 우산> 등 다수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그림책 <빨간 조끼 여우의 장신구 가게>의 작가와 함께 그림책 만나기와 시 읽기
 2.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장신구 그리기, 또는 나 꾸미기
 3. 그림책에서 시 꺼내기
- <빨간 조끼 여우의 장신구 가게>의 여우가 되어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멋질 때, 기별 때 등에 관한 시 쓰기 등

주제 도서

<빨간 조끼 여우의 장신구 가게>

우리의 즐거움이 오는 길을 여럿 열어 놓아 볼까요?
책 읽는 즐거움, 시 쓰는 즐거움이 오는 길에 함께하고 싶어요.



김성진

작가 소개

2010년 제1회 KB창작동화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한국안데르센상 대상 수상
2012년 장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전 대상 수상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창작기금 수상
2015년 「엄마 사용법」 중국, 일본 출간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도서관상주작가 선정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초등 전학년 : 「엄마 사용법」 김성진 작가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사용법'
2. 초등 고학년(4, 5, 6학년) : 꿀벌 사회와 인간 사회 -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꿀벌들의 투쟁

주제 도서

「엄마 사용법」, 「초콜릿벌 초코비」

책으로 만났으니 우리 이제 친구야!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김바다

작가소개

2000년 어린이문학 동시추천. 출간한 책으로 동시집 『별을 훔치다!』, 『수달을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 『로봇 동생』, 『수리수리 오 솔 텃밭』, 『안녕 남극!』, 『소동 경단이 최고야』, 창작동화 『돈돈왕국의 비밀』, 『지구를 지키는 가족』, 『시간먹는 시냇개비』, 그림책 『이우 왕자』, 『좋은 날엔 꽃떡』, 『목화할머니』, 지식정보책 『생존을 위한 먹거리 식량』, 『햇빛은 얼마일까?』, 『쌀밥 한 그릇에 생태계가 보여요』, 『북극곰을 구해 줘!』, 인물이야기 『독립군이 된 부자들』 등이 있다. 제8회 서덕출문학상을 수상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동시집 『별을 훔치다!』를 읽고, 나의 별에 대한 시 쓰고 그림 그려 시화 완성하기
2. 『생존을 위한 먹거리 식량』을 읽고,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먹는 음식 지도 만들기
3. 『돈돈왕국의 비밀』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돈신 그리기

주제도서

『별을 훔치다!』, 『생존을 위한 먹거리 식량』, 『돈돈왕국의 비밀』

어릴 때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오지로 긴 여행을 떠날 때, 비상식량을 잔뜩 챙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문제와 부닥쳤을 때 해결할 힘을 길러 줍니다.
시간을 내어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며, 생각하는 힘도 키우고, 지혜도 얻기 바랍니다.



김은의

작가소개

2009년 <상상력 천재 기찬이>로 푸른문학상을 받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2013년 <놀이의 영웅>으로 송순문학상을 수상했다. 2014년 <배개야, 미안해>로 한국고전번역원 우리고전 원고에 당선했고, 2015년 <누나랑 노는 특별한 방법>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쓴 책으로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비굴이 아니라 굴비입니다>, <바나나가 정말 없어진다고?>, <여기는 맑은섬 환경을 배웁니다> 등을 썼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음식과 역사가 만났을 때 - <비굴이 아니라 굴비입니다>를 읽고 ‘팔죽은 왜 동지에 먹을까?’, ‘조기를 왜 굴비라 부르게 되었을까?’, ‘비빔밥은 왜 섞어야 맛있을까?’, ‘전골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등 음식에 얽힌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보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등 일상 속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먹는 기쁨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 맛본다.

주제도서

<비굴이 아니라 굴비입니다>

좋은 책은 마음을 살찌웁니다.
함께 책을 읽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워나가요!



김은중

작가소개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과 아동문학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동화읽는어른모임’과 ‘어린이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며 동화와 친숙하게 되었으며 2010년 김민중문학상 동화부문 최우수상을 받아 등단했습니다. 이후 푸른문학상새로운작가상과 MBC창작동화대상을 받았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작품으로는 <누구로 변해드릴까요?>,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 <우리 집에 신이 산다>,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주배경어린이들을 만나 그림책 읽기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옛이야기, 신화, 장르 문학 등을 부지런히 공부하며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저학년 :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로 역할극을 하며 ‘나쁜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알고 ‘좋은 말’의 힘을 직접 느끼기
2. 중학년 : <우리집에 신이 산다>로 한국집지킴이 신과 전통문화를 알아보고 복조리와 코뚜레 결개 등을 직접 만들어보기
3. 고학년 : <누구로 변해드릴까요?>로 ‘우주여행’ 테마로 각 단편에 실린 죽음, 시간, 후회, 가뭄, 친구, 우정 등에 대한 활동하기
4. 고학년 :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로 책의 역사와 민초들의 삶을 알고 책만들기, 책 읽어주기 활동하기

주제도서

- 1.<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
- 2.<우리집에 신이 산다> 3.<누구로 변해드릴까요?>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면 책을 만나보세요
어린이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거예요.
꿈과 모험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도 해요.
책 속에서 마음껏 상상하며 즐기길 바라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김영

작가소개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2005년 푸른문학상 새로운시인상 대상을 받으며 동시를, 2015년 5.18문학상 동화에 당선되어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봉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라보며 아주 느리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이 살아가길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글을 쓰지요. 도서관과 문화센터에서 독서, 역사토론, 글쓰기지도 등을 하고 있어요. 지은 책으로, 동시집 <떡볶이미사일>, <바다로 간 우산>, <걱정해결사>, <찰칵 인사>와 인물이야기 <가장 먼저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동화책 <유별난 목공 집>이 있습니다. 김장생문학상, 한국안데르센 동시상, 구상문학창작지원금 등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딸기밭(동화) : 친해지고 싶은 친구 유형 찾아보기, 딸기밭에서 체험을 한다면, 내가 만든 딸기 음료, 요리 만들어보기
 떡볶이 미사일(동시집) : 창의성 키우기, 나만의 평화 미사일 속에 무엇을 넣어볼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나만의 실천법 공개하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 가기

주제도서

「딸기밭」, 「떡볶이 미사일」

어린이책의 해란다. 어린이들이, 해야 하는 공부 너무 많아, 책 읽기가 어렵지? 대충 읽고 그나마도 시간이 안 나지? 그런데, 책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정말 필요한 영양제야. 가끔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이야기도 있고, 하하하 웃음 터지는 동시도 있거든. 어린이책의 해에 책들과 조금 친하게 지내보기를 부탁한다.



김지연

작가소개

2024년 현재 20권의 그림책, 미술교육서 1권, 에세이 1권, 공동저자로 만화책 1권 총 23권을 만들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교사(2011~2020)로 일한 덕분에 아이들과 만나 함께 꿈꾸고 모험을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꿈꾸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2011년 출간부터 꾸준히 학교와 도서관에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과 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상상 가득한 어린이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개물이 책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1. 어린이비평동독서토론 (초등3.4.5.6, 청소년 가능) : 그림책 읽고 토론하고 질문 만들기
 2. 그림으로 이야기 해오 전체 연령(유아, 초등, 청소년 다 가능) : 그림책을 함께 보고 책 속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3. 드로잉 놀이(영유아, 초등, 청소년 다 가능) : 그림책을 함께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 모아 이야기 합니다.

주제도서

<백년아이>, <평화시장>, <아기포로>
 <넘어>, <일어나>, <달빛춤>

어린이가 두 손에 책을 쥐고 있는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모습이죠. 책을 읽으며, 얼마나 멋진 상상을 하고 희망할까요. 온 세상 어린이들 책을 읽는 두 손에서 평화와 꿈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영숙

작가소개

역사 동화와 청소년소설 : 「무덤 속의 그림」, 「궁녀 학이」, 「아기가 된 할아버지」, 「에네켄 아이들」, 「검은 바다」,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꽃제비, 영대」, 「백관도의 비밀 청자」, 「독립운동가 최재형」,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나의 할아버지 인민군 소년병」, 그림책 : 「박꽃이 피었습니다」, 「종이 신발」, 「공공 가둬 둔 이야기 귀신」, 에세이 :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나의 왼손」, 「치매 마을안의 외딴 방 하나」, 논픽션 :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 등. 현재 글을 쓰면서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역사를 소재로 한 나의 저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역사체험 및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재미있는 역사여행

주제도서

「무덤 속의 그림」, 「궁녀 학이」, 「아기가 된 할아버지」, 「에네켄 아이들」, 「검은 바다」,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꽃제비, 영대」, 「백관도의 비밀 청자」, 「독립운동가 최재형」,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나의 할아버지 인민군 소년병」, 「박꽃이 피었습니다」, 「종이 신발」, 「공공 가둬 둔 이야기 귀신」, 등에서

책을 읽어야 생각이 넓어지고 판단력도 깊어집니다. 책을 통해 저장된 지식들은 오래 오래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항상 책과 함께 하는 삶을 사세요. 독서의 양이 많을수록 지식과 교양이 깊어져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신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독서는 인생의 보물창고입니다.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박채란

작가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 박채란입니다. <까매서 안더워?>, <오십 번은 너무해>, <이혼 대비 비밀 노트> 등의 동화를 썼고 청소년 소설로는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 <한 그릇도 배달됩니다>를 썼습니다. 어린이들과 글쓰기 프로그램, 책읽기 프로그램등을 도서관에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오십 번은 너무해>를 읽고 'OOO는 너무해'를 주제로 해서 시를 지어 봅니다. 가능하다면 어린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는 작가에게 작가는 어린이에게 서로 좋아하는 책을 추천하고 추천 이유를 적어서 전달합니다.
1) 외로운 친구에게 추천하는 책 2) 심심한 친구에게 추천하는 책 3) 책을 싫어하는 친구에게 추천하는 책 등을 함께 찾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제 도서

<오십 번은 너무해>

어린이 여러분, 골고루 맛있게 먹고 친구와 즐겁게 뛰어노세요. 놀다 지칠 땀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팔팔팔 웃게 될 거예요. 기운이 날 거예요. 그럼 또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책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세요!



박혜선

작가 소개

어린이문학이 지금보다 더 즐겁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라는 걸 믿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책 신발이 열리는 나무, 할머니의 사랑 약방, 소원, 우리 할아버지는 열다섯 살 소년병입니다, 우리 마을에 온 손님 등과 동화책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비밀 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옛날 옛날 우리 엄마가 살았습니다, 마지막 막은 나와 함께 짜장면을, 열두 살 인생, 낭이 씨의 달콤한 식당 등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독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문학상>, <소천아동문학상>, <권태웅문학상> 등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역사 속으로 풍덩! / 이웃, 사회, 난민 등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림책 강의 / 지구 환경을 위한 그림책 자연 생태 시그림책 / 동시야, 놀자- 시 놀이터 / 나는 내가 참 좋아-자존감을 키우는 글쓰기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시

주제 도서

동화 <낭이 씨의 달콤한 식당>, <비밀 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옛날 옛날 우리 엄마가 살았습니다>
그림책 <우리 마을에 온 손님>, <소원>, <할머니의 사랑 약방>
동시집 <바람의 사춘기>, <나는 내가 꽤 마음에 들어>, <한 글자 동시>

어린이는 세상을 바꾸는 힘!



박혜숙

작가 소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샘터 동화상, 아동문에 문학상을 받았으며, 2002년 3월부터 2년간 「어린이동아」에 '박혜숙 선생님과 함께하는 글쓰기 교실'을 연재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배꼽 빠지게 웃기고 재미난 동 이야기」, 「물차 오는 날」, 「알았어, 나중에 할게!」, 「젓가락 도사의 후예」, 「말로만 사과쟁이」, 「옛장수 소년, 임금님 따라 화성 가다」, 「괴물 친구가 생겼어!」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포스터 만들기
- 책을 부분적으로 읽어주고, 다양한 사진 자료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에 대해 생각해 본 뒤, 모둠별로 동물 사랑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 왜 동물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제 도서

「강아지 초코를 찾습니다」

책이 어린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멋진, 가장 즐거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미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박효미

작가 소개

2005MBC창작동화 <나락도둑> 당선
그동안 쓴 책으로 <일기 도서관>, <말풍선 거울>, <학교가는 길을 개척할 거야>, <오메 돈 별자고?>, <노란 상자>, <블랙아웃>, <고맙습니다 별>, <탁구장의 사회생활>, <일단치킨 먹고 사춘기>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우리 가족 좋은 말 사전 만들기>
- <나쁜 말 사전/사계절>을 함께 읽고 퀴즈대회를 한다.
- 가족이 좋아하는 낱말을 찾아,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쓰는지 얘기한다.
- 내가 찾은 낱말로, <우리 가족 좋은 말 사전> 만들기를 한다.

주제 도서

<나쁜 말 사전>

잘 노는 어린이가 친구도 잘 사귀니까.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공부도 잘 합니다.
우리 잘 놀고, 책 잘 읽으면서, 신나게 잘 지내봐요.



백은하

작가 소개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단국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했습니다. 2004년 충청일보 신춘문예 등단, 2006년 제 7회 어린이 문학동네 문학상 수상,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 수혜, 성북정보도서관과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파견작가 및 답십리도서관 상주작가, 성북구에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 송파도서관, 동대문청소년센터, 강동구청, 돌곶이생활예술센터 등 인문학강사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인권 감수성 문해력 / 더읽기(더 물어 더 많이 쓰고 기록하기) / 어린이 꿈이 자라는 스토리텔링 / 그림책 반짝반짝 책놀이 / 그림책 문해력 글쓰기 / 모두가 환경탐험대(환경 프로그램) / 꿈꾸는 동화세상 글쓰기

주제 도서

- 인권주제 : <봉스타 프로젝트>
-환경주제 : <쓰레기용>

어릴 때 책은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였어요.
책엔 내 마음을 달래줄 소중한 보물들이 잔뜩 들어있지요.
책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른들도 친구들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나답게 살아가고 싶을 때
책에 관심을 갖고 책을 펼쳐 보세요. 분명 지름길이 보일 거예요.



부복정

작가 소개

제주의 중산간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012년 제주작가 신인상, 2013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산야를 뛰어다니며 자랐던 어린 시절이 꿈을 꾸게 하는 바탕이고 작가가 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추억이 사라져감을 아쉬워하며 제주어, 제주문화, 제주 4·3, 설화, 신화, 해녀, 갈옷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의 이야기, 꿈을 키우는 이야기를 짓고자 날마다 고민하고 상상합니다. 지역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책 보따리 등을 활용한 독서지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제주문화(제주 갈옷, 독특한 생활문화, 4·3, 제주어, 해녀, 설화) 관련 도서를 통해 과거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북토크 및 독서 활동

주제 도서

「색 나와라, 똑딱!」, 「뚜렷허당」

재밌게 뛰어놀아요.
꿈을 꾸는 어린이가 되세요.
나의 길은 나만 갈 수 있어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송방순

작가 소개

2011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천강문학상과 동서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와 동서문학회 소속이며, 등단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화책과 청소년 소설을 단행본으로 13권 출간하였고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강연하며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작은 책 만들기>

* 저학년- 작은 그림책 만들기

동화책 삽화를 보며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독자가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 봄으로써 다양한 재료와 손끝 활동을 통해 오감 발달,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게 한다.

* 고학년- 창작동화로 쉬운 글쓰기 도전

작을 정해 일대일 토의를 하고 서로 질문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작 글쓰기를 시도해 본다.

주제 도서

<내 마음 배송완료>

어린 시절 정독한 책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또래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에선 관계의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고 가상 세계에서 소통하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사진으로 보는 하늘과 직접 고개를 들어 본 하늘이 다르듯이 어린이들이 책 만들기를 통한 건전한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신서유

작가 소개

안녕하세요. 동시 작가 신서유입니다.

저는 2017년 서울문화재단 문학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동시 작품을 서울문화재단 웹진 비유에 게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 지원 창작 준비형 문학에 선정, 2019년 어린이와 문학에 신인 작가 추천으로 등단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웹진비유 및 어린이와 문학, 동시 발전소, 동시 먹는 달팽이, 동시 마중등 동시 전문 문예지 및 종합문예지에 동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2024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인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동시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현대문학 시 분과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이며 박사 논문을 작성 중입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동시의 마법 - 어린이와 함께하는 창작 여행"

동시 작가와 함께 어린이들이 함께 동시를 창작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언어 능력을 키우는 워크숍입니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주제 도서

배웠어/ 편의점 / 낙오 / 따뜻한 그늘 / 필통- 동시

"애들아, 동시로 웃고 울고 재밌게 놀아보자"



안오일

작가 소개

시와 동화 그리고 청소년소설을 쓰고 있어요.

2007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하였고, <푸른문학상>, <한국안데르센상>, <대교아동문학상>, <송순문학상> 등을 받았어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하고 힘 있는 이야기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멋진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책을 읽은 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과 다채로운 소통 하기.

- 책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보기 : 나라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 책 내용으로 퀴즈대회

주제 도서

<오야, 아빠를 구합니다!>

상상력과 호기심은 더 나은 생각을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걸 찾게 하지요.

책을 읽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상상력도 길러져요.

책을 통해 알게 되는 게 많아지면 자신감도 커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길러지지요. 다양한 책을 읽고 멋지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안효경

작가 소개

대구 출생, 국어 교육 전공. 2019년 국제신문 신춘문에 동화 당선. 2021년 단편창작동화집 <외계인과 용감한 녀석> 출간.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오디오북 지원 선정. 작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글쓰기,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 등 초등학교 강연, 도서관 글쓰기 및 독서 프로그램 강사.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사람이나 동물이나 우리는 다르기에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각자의 개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요. 그러려면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겠죠.

- 활동 프로그램: 다양한 방법으로 '소중한 나' 소개하기
은유로 표현하기, 30년 후의 나에게 편지쓰기, 좌우명 써서 책갈피 만들기, 나 열 고개로 소개하기, 힘이 되는 말 릴레이

주제 도서

<외계인과 용감한 녀석>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늘 자신에게 실패해도 괜찮다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용기를 주세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양인자

작가 소개

2009년 전남일보 신춘문에 당선, 동화 '천왕봉' 월간 '어린이와 문학' 청소년소설 추천완료 (2017) 제 7회 푸른문학상 새로운작가 상 부문 수상 (2009. 푸른책들 주관) 제 3회 정채봉문학상 대상 수상 (2013)
· 2015-. 기린아지역아동센터, 두암2동 작은도서관 글쓰기 강사
· 2020. 전남여성가족재단 라이징스쿨 문학반 운영 · 2022. 국제 교류 '한국-조지아 작가축제' 동화 부문 참여
· 2023. 전남매일신문 신춘문에 동화 심사 · 2024. 영광도서관 주관 '나도작가' 초등학교 수업 진행 등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차별과 혐오의 끝은 무엇일까 :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진정한 우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역할극 해보기,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종이비행기 만들기 등 활동)
2. 역사, 미래를 위한 나침반 : 5·18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알아봅니다.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과거란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주제 도서

<사람을 찾습니다>, <오월의 어린 시민군>

몸 튼튼! 마음 튼튼!~~
책과 함께 더욱 씩씩하고 건강한 어린이~~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오시은

작가 소개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예요.
2003년 단편동화 「컴맹엄마」로 등단했어요.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판타지를 좋아하고, 광활한 우주와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SF를 좋아해요. 별의별 신들이 등장하는 신화는 좀다 못해 우러르고요. 최근에 출간한 「곤을동이 있어요」, 「천삼이의 환생 작전」을 비롯해 20여권의 책을 냈어요.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세상의 편견을 향한 외침
- 내용 : 어떤 얘기냐면요. (작품 감상) / 감상을 나눠요 (감상평 나누기) / 편견이 뭐예요? (편견에 대해 알아보기) 생각을 나눠요 (편견을 없애는 방법)
 - 활동 : 천삼이 소환 작전(사라져야 할 편견을 세상을 향해 날려요)
 - 퍼포먼스 : "나도 천삼이다!" 선언식 / 소원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주제 도서

「천삼이의 환생 작전」

<어린이 책의 해>라니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그러니 책으로 신나게 놀아보는 거예요. 뛰면서 놀고, 춤추며 놀고, 게임하며 놀고,
여행하며 노는 것도 좋지만 책과 함께 노는 것도 편이 재미있거든요.
이번엔 꼭 책 놀이에 퐁당 빠져 보자고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오진희

작가 소개

대표작 짱뚱이 시리즈(총 9권)를 시작으로 우리 마을에 놀러 오세요.(웃는 돌고래), 모두섬 이야기(내 인생의 책), 자연을 먹어요, 초록별에서(단비 어린이) 초록이와 마녀와 느티나무소년(북멘토)등 자연과 함께 숨쉬고 소통하는 이야기들을 써왔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작가의 책 '초록이와 마녀와 느티나무 소년 / (오진희 글, 김혜원 그림, 북멘토 출판사)을 읽고 난 뒤의 독후활동으로 나만의 '나무 친구 만들기'와 그 나무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 엮어서 쓰기.
2. 우리 학교 (동네)식물 사전 만들기

주제도서

〈초록이와 마녀와 느티나무 소년〉

2024년 어린이 책의 해를 맞이하여 어린이 친구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는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친구들을 책 속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유영소

작가 소개

이야기를 좋아하던 어린이에서 이야기 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림책, 동화, 청소년소설을 두루 씁니다. 어린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거나 어른의 내면이 투영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며 씁니다. <겨울 해바라기>로 제1회 마해송문학상을,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로 제4회 정채봉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초등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불가사리를 기억해>라는 작품이 수록되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 책이랑 놀면서 나, 너, 우리를 생각해 보자 ||
 '나'를 탐색하는 활동. '너'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활동. '우리' 나무에 열매를 맺는 활동.
 아이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생각한다.

주제도서

〈단짝이 아니어도 좋아〉

책은 문입니다.
 책이라는 문을 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요.
 또 다른 세계마다 어린이들을 기다리는 다람쥐와 외계인과 마녀와 노마와 비비와 여우누이와 해적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제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진짜 신나게 한바탕 놀아요!



유하정

작가 소개

2013년 <어린이와문학>으로 등단. 해암아동문학상 동화부분과 한국안데르센상 동시부분을 수상했고 콘텐츠 창작 글쓰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웹진 <동시빵가게>에서 동시를 구워내는 일을 할 때와 어린이들과 독자를 만나는 날 제일 많이 웃습니다. 동시집 『얼룩말 마법사』, 『구름 배꼽』, 시 그림책 『또또나무』, 『벽의 마음』, 동화책 『꽃비 내리던 날』, 『여우별이 뜨던 날』을 출간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시 그림책 『벽의 마음』을 읽고
 누군가를 위한 마음, 동물을 안고 싶은 마음, 여러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직접 써 보는 프로그램.

주제도서

『벽의 마음』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물건, 별로인 생각 등,
 이런 마음들이 모여 내가 되니까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이묘신

작가 소개

2002년 MBC창작동화대상에서 단편동화 「꽃배」로 수상하고, 2005년 「애벌레 용터」 외 5편으로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을 수상했다. 2019년 동시집 「안이 궁금했을까 밖이 궁금했을까」로 서덕출 문학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동시집 「책벌레 공부벌레 일벌레」, 「너는 1등 하지 마」, 「눈물 소금」, 「마법 걸린 부엉이」와 그림책 「어디로 갔을까?」, 「콩깍지 콩깍지!」, 「후루룩 후루룩 콩나물죽으로 십 년 버티기」, 동화책 「강아지 시험」, 「김정희 할머니 길」 등이 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빛그린 시 쓰기(디카시 쓰기)
- 사진을 이용한 시 쓰기
- 내가 찍은 사진으로 시 쓰기

주제도서

「마법 걸린 부엉이」

어린이들이 책과 친구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가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서유

작가 소개

언제든 뒤돌아보면 어제 일처럼 선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일들이 아주 또렷합니다. 그때 있었던 신나고 기뻐던 일, 슬프고 속상한 일, 혼자만 간직하고픈 사소한 일들이 아직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아 지금껏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나 봅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작가와의 만남
 - 꿈을 찾아가는 일
 - 미래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일
2. 어린이의 고민 상담소

주제도서

〈창밖은 맑음〉, 〈짐승의 여름 방학〉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각자가 생각한 사람들을 말한 뒤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점수를 준다면 등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참 자아상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자신을 사랑하면 좋은 점을 찾아보고 매일 매순간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을 나열하고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정지

작가 소개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들꽃을 찾아다녀요. 숨어있는 지역이야기를 한 땀 한 땀 수놓고 있어요. 독서모임 '휴휴'와 독서프로그램으로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리며 마음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본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보편 정서를 소박한 글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시집으로 「휘어짐의 일상」, 「호르다가 멈춘 물방울 사이」가 있고, 에세이집 「마흔아홉 - 백제녀편지」, 「My life in England」가 있고, 그림책 「지사랑이」, 「바람의 끈」, 「아롱다롱한 이불을 좋아하는 할머니」, 「하늘 땅 사람이 어울려 고인, 돌」, 아이들 시를 묶어 「꿈꾸는 아이」를 펴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책 읽기가 어려움이 아닌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바람의 끈, 하늘 땅 사람이 어울려 고인, 돌〉 책을 읽고, 동네 밖에 나가서 숨어있는 유물들을 찾아내고 느끼고 싶어요. 〈지사랑이, 아롱다롱한 이불을 좋아하는 할머니〉를 읽고는 숨어서 수고한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 싶어요. 나를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마음을 나누고, 편지도 써보고, 재미있는 독후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요리, 압화, 그림,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요.

주제도서

「바람의 끈」, 「하늘 땅 사람이 어울려 고인, 돌」, 「지사랑이」, 「아롱다롱한 이불을 좋아하는 할머니」

어린이는 모든 것을 꿈 꿀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은 묻고, 궁금한 것은 찾아보아요. 책에는 모든 답이 있어요. 가까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길을 찾아가는 보물지도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이주영

작가 소개

한국작가회의, 한국어린이문학협회의 회원으로 어린이청소년 관련 동시, 동화, 수필, 지식정보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 민주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으며,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민주화와 근현대사를 잘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역사 관련 책을 기획 출판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구름아 나랑 놀자」, 「바람아 너 이름이 뭐니?」: 유아초등 3학년 이하 어린이들과 사물 이름으로 활용한 동시 쓰기와 명사 활용 놀이를 통한 언어인지능력 개발 독서 활동
2. 「죽을 뻔했던 이야기」, 「비비아 미안해」: 10세 전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는 생활 습관, 반려동물과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의·토론 활동
3.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신채호 말꽃 모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 청소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는 근현대사 이야기 나눔 마당을 국회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

주제도서

- 유아. 초(10세 이하) 「구름아 나랑 놀자」, 「바람아 너 이름이 뭐니?」
- 초중(10세 전후) 죽을 뻔했던 이야기, 「비비아 미안해」
- 청소년(초고. 중고등)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신채호 말꽃 모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함께하겠습니다.



이창숙

작가 소개

2009년 우리교육 어린이책 작가상 대상을 받으며 등단. 동화, 동시, 청소년 소설, 논픽션 등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도서관, 학교에서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무옥이>, <조선의 수학자 홍정하>, <쥐구멍>, <깨알 같은 잘 못>, <독립군이 된 간호사들> 등의 책을 썼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동시집 <쥐구멍>에서 좋아하는 시 함께 읽고 시 쓰기
2. 그림책 <아나들의 냄비> 함께 읽기 (강사가 PPT 준비)
3. 자신이 쓴 시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보기 (8컷 정도)
4. 발표하기

주제도서

<쥐구멍>

잘 먹고 잘 놀고 재밌는 책도 많이 보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이향안

작가 소개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으로 웅진주니어 문학상 장편 대상을 받았어요. ‘그 여름의 덩더디’, ‘앵무새 초록’, ‘실록을 지키는 아이’, ‘5시 고양이’, ‘나도 서서 놀 테야’, ‘팔쥐 일기’, ‘마법에 걸린 학교’ 등의 작품을 썼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암호로 문장 이해 능력 키우기-
집필한 책 중에 암호를 풀어 도둑을 찾아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 재미있는 암호를 소개하고 직접 암호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어요. 더불어 문해력과 연결해서 암호 형태의 그림과 기호들을 통해 우리말 속담, 사자성어 등을 알아보는 퀴즈 등도 해봅니다.

주제도서

「별난반점 헬멧똥과 X 사건」

어린이들에게 신나게 재밌게 뛰어노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동화책을 보며 상상의 나라를 떠는 시간도 소중한지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만큼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요. 책과 즐기는 시간을 통해 몸도 마음도 즐거운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장영복

작가 소개

2004년 가을 <아동문학평론>신인상에 동시가 당선되어 글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도 동시가 당선되었습니다. 제12회 서덕출문학상과 제5회 어린이와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첫 동시집 『을 얘기 예쁘지』를 비롯한 네 권의 동시집을 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며 그림책을 몇 권 출간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찾아오는 상상력, 자연을 관찰하며 얻어지는 상상력 등에 기대 동시와 그림책 글을 썼으며, 지금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어린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작품으로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1) 동시 프로그램(모든 학년)
가족, 반려동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키워 본 동물을 주인공으로 캐릭터를 그리고 시창작도 해 볼 수 있습니다.
- 2)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모든학년)
관찰의 결과물과 창작의 경험을 어린이들과 나눌 수 있으며, 자연현상을 느끼고 몸으로 표현하는 마음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 3) 독립운동이야기를 「친애하는 마동지」에 들어요(고학년)

주제 도서

- 1) 동시 프로그램 : 「고양이 걸 씨」, 「똥 밟아봤어?」
- 2)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호랑나비와 달님」, 「도토리 종이의 봄여름가을겨울」
- 3) 독립운동이야기 : 「친애하는 마동지」

책은 나를 알아주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책과 가까이 지내요.



장지혜

작가 소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좋아해, 지금까지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인하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했으며 5·18 문학상, MBC 창작 동화 장편부문 대상, 아르고 창작 기금, 인천문화재단 창작 기금 등을 받았습니다. 쓴 책으로 「사자성어 꿈의 비밀」, 「할머니는 왕 스피커」, 「다 같이 하자 환경지킴이」, 「레오나르도 아저씨네 피자 가게」, 「그냥 포기하고 말까?」, 「여기는 대한민국 푸른 섬 독도리입니다」, 「고마워, 살아 줘서」, 「어쩌다 우린 가족일까?」, 배우 이윤지가 낭독한 「이야기 365」(공저), 「페랭이, 요셉을 만나다」(공저), 「이 집 사람들」, 「안녕, 바다 안녕, 별주부」, 「이상한 아이스크림 가게」, 「아주 먼 옛날 작달막이 이야기」, 「변신 문어 원더」, 「껌딱지 코딱지」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지금까지 환경 동화 「안녕, 바다 안녕, 별주부」(2021)로 '지구를 살리자'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그밖에 「아주 먼 옛날 작달막이 이야기」로는 공룡을 활용한 역할극, 「변신 문어 원더」로는 흥겨운 문어 노래와 바닷속 생물들 역할극 등을 하면서 어린이들과 만나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제 도서

- 안녕, 바다 안녕, 별주부, 「아주 먼 옛날 작달막이 이야기」, 「변신 문어 원더」, 「껌딱지 코딱지」

지금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슬프다고 해도
모든 일은 결국 바람처럼 지나가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한겨울 때서운 추위가
봄기운에 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이 있단다.
그러니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 볼까?



전경남

작가 소개

2003년 제4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이후 20여 권의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썼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예창작학과에서 동화창작 수업을 하고 있고, 계간 <어린이와 문학>의 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동화분과장 역임, 월간 <어린이와 문학> 편집위원, 기획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를 하면서 본인의 작품 <누나면 다야>으로 낭독극을 기획했습니다. <놀어하는 작가들>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신나는 예술여행', '문학, 번지다' 사업 등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낯설지만 무섭지는 않아! - 낯선 존재와 소통하기>
작가가 외계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 질문을 유도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영화속 외계인들의 다양한 모습과 그 모습의 공통점, 생김새의 비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외모와 혐오 등과 관련된 이야기) 이후 <외계인 첩> 작품의 북트레일러를 보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쇼퍼백으로 외계인을 만들어본다.
2. <요즘 선생님과 요즘 어린이>
선생님을 여러 각도로 보여줌으로써 선생님과 관련한 이해를 높여 사제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주제 도서

1. <외계인, 첩>
2. <선생님, 저랑 상담할래요?>

책은 짝퍽이다.
팔팔 웃음도 주고,
혹혹 감동도 주고,
뚝뚝 정보도 주지.
책은 심심할 때 만나면 웃음도 주고, 슬플 때 만나면 위로도 주고,
궁금할 때 만나면 알려도 준다. 책과 사이좋게 지내!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정란희

작가 소개

신춘문예에 「우리 이모는 4학년」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어린이와 여성, 소외 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며 행동하고 있고, 2015년에는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창작동화와 역사동화를 많이 쓰며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사할린 아리랑」, 「오월의 주먹밥」, 「나비가 된 소녀들」, 「무명천 할머니」, 「우리 형이 온다」, 「우리 이모는 4학년」, 「바보 의사 장기려」, 「행운 가족」,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 「나쁜 말은 재밌어」, 「엄마의 팬클럽」, 「아빠는 슈퍼맨 나는 슈퍼보이」, 「동생 홍보기 대회」, 「단추 마녀 시리즈」, 「우등생 바이러스」, 「허둥지둥 산타 가족」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평화와 인권,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2. 작가와의 만남-작가가 뭐예요?
3. 재미있는 단추 마녀 이야기

주제 도서

1. 「단추 마녀의 수상한 식당」
2. 「무명천 할머니」

어린이책은 작가가 쓰고, 어린이들이 읽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린이 독자와 동화작가가 만나는 일도 꼭 필요하고도 아름다운 일이지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과 책이 더욱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정미영

작가 소개

제13회 5.18문학상을 받으며 동화 「레벨업」으로 등단했습니다. 청소년 앤솔로지 소설집, 「5월 18일, 잠수함 토끼 드림」에 「분홍 토끼를 위하여」를 썼습니다. 새롭게 쓴 전래동화 「별난 할머니와 욕심쟁이 할아버지」, 「울퉁불퉁 메기 대왕의 꿈」, 「땅속 괴물을 물리친 용감함 막동이」, 「똥구멍만 겨누는 가짜 명궁 괴돌이」, 「호랑이 사또를 물리친 대단한 다섯 자매」를 썼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이야기 속 문해력 퀴즈 대결〉
- 다섯 소녀가 힘을 합쳐 호랑이 사또를 물리친 이야기를 통해 나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속 문장에서 단어를 찾고 서로에게 퀴즈를 냅니다.

주제 도서

「호랑이 사또를 이긴 대단한 다섯 자매」

어린이가 자라면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큰 꿈이 자라날 수 있게 책이라는 비료를 듬뿍 뿌려주세요.



정애화

작가 소개

저는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했으며 오랫동안 '광주본부세관'에 근무했고, 2016년 정년했습니다. 우선 2021년 광산구 (이야기꽃 도서관)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와 광주극장」이라는 그림책을 처음 냈고, 매년 1권씩 4권을 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생나눔멘토 사업일에 강사로 투입되어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2회 7개월간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꿈동이 그림책 강사도 했습니다. 그림책에 관한 자격증 3개와 동화구연, 전래놀이,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친화력이 좋습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가치관 경매 놀이
2. 계란판 탁구공 옮기기 놀이
3. 스태킹 놀이(일명 컵 쌓기)
4. 비석치기
5. 사방치기 놀이
6. 산가지놀이

주제 도서

「양동시장 구경 갈까?」, 「짚방산에 놀러 갈까?」, 「나와 광주극장」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야기 해봐요.

책끼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정혜원

작가 소개

우리 소리와 고전을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책 작가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예술 판소리를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어린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판소리를 비롯한 옛이야기와 우리 역사 속 고전을 바탕으로 한 글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1. 나만의 아리랑 만들기
판소리와 결이 같은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을 배워보고 나의 이야기를 노랫말로 새롭게 만들어 나만의 아리랑 부르기
2. 마음이 쉬어가는 이야기 놀이터
학교와 학원 수업에 바쁘고 힘들 아이들과 여럿이 함께 모여 옛이야기도 듣고 그림책도 읽고 무섭고 신나고 밀밀대며 웃을 수 있는 우리 동네 이야기 만들기

주제도서

〈판소리 소리판〉

어린이 책 작가는 어린이를 세상 모든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이의 마음속 친구입니다. 어린이 책의 해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축하해요!



천희순

작가 소개

2006년 제14회 MBC창작동화대상을 수상, 고려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덕여자대학교와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아동문학과 소설 창작을 지도했다. 현재 '크네의 서재'와 '예술치유연구소 앨리스와토키'에서 어린이 작가들의 마음을 담은 동화 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창작동화 〈오희산의 비밀〉, 〈나는 선생님이랑 친구한다〉, 〈14일의 약속〉, 〈노는 게 제일 좋아〉를 출간했고, 심리치료사와 함께 쓴 글쓰기 워크북 〈꼬마작가를 위한 창작동화 만들기〉가 있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 크네와 함께 하는 〈어린이 작가 교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단어를 이용해 나만의 이야기 만들어 작가 체험하기
- 북 테라피 〈내 마음, 네 마음〉: 고민이나 속상한 일을 비밀 종이에 적어 친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 신나게 읽고 즐겁게 놀기 〈와글와글 독서놀이터〉: 책과 연계된 활동이나 놀이 체험하기, 책에 등장하는 소품 만들어 등장인물 체험하기

주제도서

- 다문화, 장애, 왕따, 친구, 모험, 자립성 〈오희산의 비밀〉
- 친구, 자존감, 선생님, 고민, 일기, 관계, 위로 〈나는 선생님이랑 친구한다〉
- 장래 희망, 공부와 놀이, 책임감 〈노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은 마법을 믿나요? 전 믿어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책 친구가 만들어줄 마법의 순간을 함께 경험해보지 않을까요?



최형미

작가 소개

서울에서 태어나 문학을 공부하고 2004년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해 현재 100여 권 가까이 단행본을 출간했어요. 현재도 열심히 동화를 쓰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작가 강연 및 감정학교, 표현력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도서

〈키라의 감정학교〉, 〈소문바이러스〉, 〈행운 바이러스〉, 〈표현력 사전〉 등

최고의 보물 어린이들의 매일매일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선물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책미리와 함께 작가가 간다!



한상순

작가 소개

약력 : 1999년 <자유문학> 동시부 신인상

- 동시집 : 「예쁜 이름표 하나」, 「갓고싶은 비밀번호」, 「뽕튀기는 속상해」, 「병원에 온 비둘기」, 「딱따구리 학교」, 「세상에서 제일 큰 키」, 「병원에선 간호사가 엄마래」, 「거미의 소소한 생각」외 공저 다수
- 그림책 : 「호랑이를 물리친 재투성이 재덕이」, 「오리가족 이사하는 날」, 「숲속 곰곰이 보건소」
- 수상 : 황금펜아동문학상, 우리나라좋은동시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서덕출문학상, 천상병동심문학상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좀중중중」 「기계를 더 믿어요」가 실렸다

어린이와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동시와 그림책으로 하는 인문학강의 / 놀이

주제도서

상황과 학년에 맞는 동시집과 그림책

먼 길 함께 가는 친구, 책 친구!
손잡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보자!